

6

宗梵(서정문)

불교학과

임제선종과 서산선종

臨濟禪風과 西山禪風

宗梵(서정문)

불교학과

目 次

I. 머리말

II. 臨濟禪風

1. 臨濟의 生涯

2. 臨濟의 禪風

1) 無修無證의 선풍

2) 殺佛殺祖의 선풍

3) 無依道人的 선풍

4) 示教接化의 綱要

III. 西山禪風

1. 西山의 生涯

2. 西山의 禪風

1) 祖師禪宗旨의 禪風

2) 圓融修行의 禪風

3) 福國利生の 禪風

IV. 兩 禪風의 比較

V. 맺음말

I. 머리말

西山大師의 「淸虛集」중에는 「臨濟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서산의 대표적 찬술서라고 할 수 있는 「禪家龜鑑」에서도 臨濟家風에 대하여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고 여러 항목에서 臨濟宗의 연원을 언급하였다. 서산의 이러한 禪風은 臨濟禪風을 존중히 여긴데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이점은 서산의 제자들도 매우 강조한 부분이다. 鞭羊彦機(1581~1644)는 《西山行蹟草》를 쓰면서 “서산대사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적에 臨濟宗風을 잃지 않은 것은 근본이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太古和尚이 중국 하무산에 들어가 石屋의 법을 이어서 幻庵에게 전하였다. 이에 환암은 龜谷에게 전하고, 귀곡은 正心에게 전하고, 정심은 碧松에게 전하고, 벽송은 芙蓉에게 전하고, 부용은 西山에게 전하니 석옥은 임제의 嫡孫이다.”라고 기술하였으며, 中觀海眼(1569~?)은 《四溟大師行蹟》文을 통해서, 서산은 석가모니의 63대 法孫이며 임제의 25대 直孫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獅岩采永의 「佛祖源流」(1764)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는 임제의 法統說로

‘朝鮮僧侶大同僧譜’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유풍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에도 서산대사를 석가모니의 63대 법손, 임제의 25대 법손으로 보는 祖派僧譜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入寂한 高僧에게 생존한 승려들의 염원을 표현하는 ‘表白文’에는 “임제의 門中에서 길이 人天의 眼目이 되어 주십시오(臨濟門中 永作人天之眼目).”라고 표백한다. 조선불교에 있어서 이러한 佛祖統譜觀과 法風은 서산스님 이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조선불교의 분명한 범풍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불교와 임제선종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조선불교만이 간직한 역사적 특수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일까. 도대체 조선불교와 임제선종과는 어떤 관계일까. 조선불교는 단순한 임제선종의 연장에 불과하고 아무런 독립적 특성과 주체적 전통이 없는 것일까. 이런 점은 현재의 입장에서 분명히 조명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제선종까지도 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조선불교의 선종과 임제종의 선종을 비교검토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물론 조선불교 선종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임제종풍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총망라하여 살펴본 다음 그 공통성과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감히 그러한 방법을 시도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조선불교 선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는 서산선종에 한정해서 조선선종과 임제선종과의 특성을 살펴려 하였다. 그렇게 한 까닭은 서산의 선종은 서산이전의 불교적 유산을 두루 포용하여 하나의 큰 범종을 이룬 다음 그 영향이 조선후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산의 선종은 바로 조선시대 전체의 선종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임제선종에 있어서도 초기의 임제선종이 수립된 후에 看話禪風 등 많은 家風이 형성되어 있으나 本稿에서는 임제선사가 친히 베풀었던 法語와 禪風에 의거하여 임제선의 특질을 고찰한 다음에 서산선종과 대비하여 두 선종간의 공통성과 독자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한다.

이처럼 본고에서 의도하는 바는 임제의 근본선종과 서산의 기본선종을 대비해서 고찰하여 조선불교선종과 임제종선종간에는 어떠한 연관성과 독자성이 있는가를 구명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임제종선종과 조선불교선종의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중에서 오직 임제선사와 서산선사에 국한해서 고찰할 때 너무나 단순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두 선종을 기반으로하여 파생한 지엽적 문화보다는 두 선종의 근본적인 특성을 고찰하는 데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

하여 본 논문에서는 임제선종과 서산선종의 원형적 특성을 파악하는 일에 중점을 두려 한다. 두 선종의 원형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불교사를 깊이있게 조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II. 臨濟禪風

1. 臨濟의 生涯

臨濟의 생애와 宗風를 전하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① 「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¹⁾ ② 「祖堂集」 권19²⁾ ③ 「宋高僧傳」 권12³⁾ ④ 「景德傳燈錄」 권12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이하 「임제록」으로 약칭)은 宣和二年(1120)의 重刊本으로서 ① 上堂 ② 示衆 ③ 勸辨 ④ 行錄 ⑤ 塔記 등의 편차로 구성되었다. 임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기타의 문헌은 주로 ‘傳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헌들이다. 이밖의 「벽암록」· 「종용록」 등에 부분적으로 임제의 행록이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제록」과 「조당집」을 주로 의거하고자 한다. 이들 문헌에 대한 서지학적인 검토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려 한다.

그러면 「임제록」의 《답기》에 수록된 임제의 약전을 우선 살펴보자.

임제선사는 범명이 義玄이고 曹州 南華人이니 속성은 邢(형)씨이다. 임제의현은 어릴때는 영리하였고 성장하면서는 효행으로 칭송을 들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서는 경율론三藏을 두루 학습하고 탐구하였다. 그러다가 어느날, 경교의 가르침은 세상을 구제하는 방편이라고 크게 느끼고 禪門에 입문하였다. 선문에 입문해서는 먼저 黃蘗希運禪師(856寂)를 찾아가서 그의 會上에서 정진하였고 뒤에는 大愚禪師의 가르침을 받았다. 임제의현은 황벽선사로부터 印可를 받은 다음에는 곧 河北 鎮州城의 동남쪽 호타 河水부근의 조그마한 사원에 이르러 머물렀다. 임제라고 하는 법호도 이 지형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름이다.

그때에 普化선사가 먼저 그곳에 있었는데 미친것처럼 행세하며 군중에 섞여 있어서 범부인지 성인인지 알 수 없었다. 임제선사가 오니 교화를 돕다가 전신으로 해탈하여 가버렸다. 그러다가 병란이 일어나서 임제는 그곳을 떠났다. 太尉默君과가 성중에서 가옥을 희사하여 절을 만들고 ‘臨濟’라는 현판을 달고 임제선사를 영접하여 기거하게 하였다.

후일에 옷자락을 떨치고 남방으로 가서 河府에 이르니 府主인 王常侍가 스승의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임제는 그곳에서 얼마 머물지 않고 大名府 興化寺의 東堂으로 옮겨 기거하였다. 임제는 아무런 병도 없이 지냈는데 어느날 옷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三髻으로 더불어 문답을 마친 다음 고요

1) 「大正藏」 47·495-506.

2) 「高麗大藏經」 제45, 補遺 II, p.253-254. 동국대 영인본.

3) 「대정장」 50·779상·중.

4) 「대정장」 51·290-291.

히 입적하였다. 때는 唐 咸通 八年(867) 정월 10일이었다. 문인들이 선사의 전신으로 大名府 서북편에 탑을 세웠다. 칙령으로 시호를 ‘慧照禪師’라 하고 탑호를 ‘澄靈’이라 하였다.⁵⁾

이상은 「임제록」중의 《행록》부분 맨 뒤에 수록된 약전이다. 이 약전을 《塔記》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략히 기록된 전기만 가지고는 임제의 생애에 대한 윤곽과 특징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임제록」과 「조당집」의 기록 중에서 생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더 참고해야 하겠다. 임제종풍을 고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임제의 求道行蹟과 行化家風이다. 임제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구도의 정진을 했으며 悟證한 다음에는 어떠한 法風과 방편으로 行化에 임했을까? 이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능한 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임제의 구도과정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제가 출가한 연령의 시기는 어느때이며 처음 불가에 입문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도에 임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임제의 출가한 나이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불문에 들어와서는 약전에도 간략히 언급된 바와 같이 講堂에 머물면서 律典과 經論을 많이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⁶⁾ 임제의 佛典探究에 대해서는 「임제록」《示衆》에서도 말하고 있다. “山僧도 지난날에 일찍이 율전에 마음을 두었으며 또한 경론을 찾아보고 탐구하였다. 뒤에 바야흐로 이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약이며 설명하는 말일 뿐임을 알고 일시에 버리고 參禪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하여 大善知識을 만나서 道眼이 분명해졌다.”⁷⁾ 이렇게 임제는 많은 불전을 탐독하고 연찬하였다. 실제로 「임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능엄경」·「화엄경」·「법화경」·「금강경」·「유마경」·「기신론」·「유식론」 등의 내용이 깊이 용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唯識學에도 깊은 탐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임제는 이와 같이 많은 불전을 탐독하고 尋察하다가 선문에 입문하였다. 선문에 입문해서는 황벽회운선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는데 이때 황벽이 임제에게 지도한 법풍은 임제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임제록」에서는 황벽과 임제의 처음 法緣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다. ‘三度發問 三度被打’⁹⁾가 그것이다. 임제는 황벽에게 세 번에 걸쳐 법을 물었는데 세 번 다 얻어맞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大愚선사를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 대우는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¹⁰⁾고 하였다. 그래서 임제는 바로 황벽에게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조당집」에 의하면 임

5) 「대정장」 47·506하.

6) 《居於講肆 精究毘尼 博探經論》「대정장」 47·506이하.

7) 「대정장」 47·500중.

8) 柳田聖山, “臨濟錄に見える佛教學の問題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제9권 제2호, 1961.

9) 《上堂》「대정장」 47·496중.

10) 《汝師黃蘗 非干我事》「경덕전등록」 권12, 「대정장」 51·290중.

제는 10여년간 대우의 곁에서 시봉을 하였다고 한다. 대우는 임종할 때에 임제에게 유언하기를 “뒷날 세상에 나타나서 법을 퍼게 되거든 무엇보다도 황벽을 잊지말라.”고 했으며, 그로부터 임제는 鎭府지방에서 교화를 폈는데 비록 황벽의 법을 이었으나 항상 대우를 찬양하였고, 교화의 법은 할(喝)과 방(棒)을 많이 썼다고 한다.¹¹⁾ 이처럼 임제는 황벽과 대우의 법을 많이 받아서 도의 세계를 이룬 것이다.

이와 같이 임제는 처음에는 경론과 율전을 탐구하다가 선문에 들어가서 祖師禪의 가풍으로 수행정진하여 도안을 명백히 하였다. 임제에게 선법을 지도한 황벽·대우는 한결같이 고준한 선풍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이는 임제의 선풍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법의 인연에서 임제선풍은 더욱 크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임제의 行化인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야 할 것 같다. 임제는 어느 날 황벽을 하직하고 떠나려 하였다. 황벽이 물었다. “어느 곳으로 가려느냐?” 임제는 “河南이 아니면 河北으로 가겠습니다.”하였다. 황벽은 바로 후려쳤다. 임제는 황벽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황벽은 크게 웃고 시자를 불러 “百丈스님께서 전해주시는 禪板과 机案을 가져오너라.”하고 시켰다. 임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 버리겠다는 뜻으로 “시자야 불을 가져오너라.”하였다. 황벽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너는 가지고 가라. 후에 많은 사람의 떠드는 입을 막게 될 것이다.”하였다.¹²⁾ 「벽암록」 제68칙 《評唱》에 의하면 百丈懷海(749~814)는 황벽에게 禪板과 蒲團을 물려주고, 鵝山靈祐(771~853)에게는 拄杖子和 佛子を 물려주었다.¹³⁾ 황벽은 이렇게 백장에게서 전해받은 선판과 궤안을 임제에게 信表로 준 것이다. 이때 임제는 죽석에서 태워 버리려 하였다. 이런데서 임제선풍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임제는 선풍을 들날림에 있어 많은 禪僧들과의 問答과 舉揚이 있었다. 「임제록」에는 鵝山·仰山·趙州·普化·木塔長老·大覺·麻谷·龍牙·徑山·王常侍 등과의 參問과 舉示의 인연이 보인다. 이중에서도 위산·仰山·조주·보화와의 문답한 機緣은 유명하다.¹⁴⁾ 임제에게는 行脚과 參訪의 기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임제가 행각할 때에 龍光·三峯·大慈·翠峯·華嚴·象田·明化·鳳林·金牛 등을 찾아가서 만난 인연이 있다.¹⁵⁾ 達磨의 塔에 이르러서는 塔主가 임제에게 “부처님께 먼저 예배하겠습니까? 달마조사에게 먼저 예배하겠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임제는 “부처와 조사에게 다 예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塔主는 임제에게 “불조와 임제스님과는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하였다.

11) 「조당집」 권12, 「고려대장경」 권 제45, p.354상, 동국대영인본, 1976.

12) 《行錄》「대정장」 47·505하.

13) 「벽암록」 권7, 「대정장」 48·198상.

14) 임제와 普化와의 인연은 보화의 기이한 행적과 특이한 입적에 임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이야기다. 보화에 관한 기록은 「임제록」외에도 「조당집」 권17·8장, 「경덕전등록」 권10, 「대정장」 51·280중·하에 수록되었다.

15) 《行錄》「대정장」 47·506상·중·하.

이때에 임제는 옷자락을 떨치고 나가버렸다.¹⁶⁾

임제가 선양한 선풍은 주로 이런 것이었다. 임제는 이렇게 활달한 선풍으로 연연 따라 道風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임제에게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다. 「경덕전등록」에는 임제의 ‘法嗣’로 22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22인 중에 16인은 法語機緣을 수록하였고, 6인은 機緣語句가 없어 기록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¹⁷⁾ 기연어구가 없어 기술하지 못하는 6인 속에는 ‘新羅國智異山和尚’도 있다. 지리산화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상고할 수는 없으나 만약 지리산화상이 신라에 돌아와서 법을 폈다면 임제선법은 신라시대에 한국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¹⁸⁾

임제는 이렇게 도의 세계를 빛내다가 입적을 맞게 된다. 입적할 때에 임제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입적한 뒤에 나의 正法眼藏을 없애지 말아라.”하였다. 이에 제자인 三聖이 일어나서 “어찌 감히 스님의 정법안장을 없애겠습니까?”하였다. 임제는 말하기를 “이후에 사람들이 너에게 묻는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하였다. 삼성은 바로 “할”을 했다. 임제는 말하기를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게 가서 없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하고는 조용히 示寂하였다.¹⁹⁾ 遷化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당집」·「전등록」 등에서는 ‘唐 咸通七年 丙戌歲 四月十日 示化’라 하여 AD.866년에 입적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임제록」에서는 ‘咸通八年 丁亥 孟夏月十日’ (867)로 기록되었다. 1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임제의 생애를 개관해 보면 그대로 ‘禪師’로서의 생애였음을 알 수 있다. 임제는 교학적 수련도 조예가 깊었으나 선문에 입문하여 도안을 밝힌 후에는 평생 선양한 것이 순수 ‘祖師禪風’이었다. 임제는 행각도 많이 했고 嗣法弟子도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태위목군화·왕상시 등의 外護緣도 있었으나 일상의 선풍은 매우 고준하고 소박한 선풍이었다. 황벽이 전하는 禪板과 机案을 즉석에서 불태우려 하였으며, 임종시에 나는 문답은 모두가 全殺全活의 활달한 면목이었다. 임제는 이와 같이 순수 조사선풍의 선사로서 고준하고 활달하고 소박하고 호쾌한 면모를 보인 것이 그 생애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탈속하고 활달한 면은 임제 생애의 중요한 특색이 될 것이다.

2. 臨濟의 禪風

1) 無修無證의 선풍

불교에 있어서 修行과 證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번뇌와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

16) 《행록》「대정장」 47·506상.

17) 「전등록」 권12, 「대정장」 51·289 및 pp.294-296상.

18) 徐閔吉, “高麗末 臨濟禪의 受容” 「韓國禪思想研究」 pp.205-208, 198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 「임제록」, 《행록》「대정장」 47·506하.

이 어떻게 닦아서 어떠한 세계를 이루어야 원만구족한 경지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이 불교의 교학적 체계인 것이다. 이처럼 修證의 구현은 敎家の 常道이다. 그렇다면, 임제선풍에서는 수행과 증과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는 임제의 수행관과 성불관을 고찰하기 위해서도, 임제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살펴야 할 항목일 것이다. 이에 「임제록」에 거론된 수증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초록해 본다.

① “어떤 것이 眞佛이며, 眞法이며, 眞道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에, 임제는 “佛은 마음이 청정한 것이며, 법은 마음이 광명스러운 것이며, 도는 곳곳에 걸림이 없는 맑은 광명이다. 셋이 곧 하나인데 다 이름뿐이며 진실로 있는 것은 없다. 진정,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생각생각에 마음이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깨우침을 주었다.²⁰⁾

② 그대들이 佛祖와 다름이 없으려면 밖으로 구하지 말라. 그대 마음의 청정한 광명이 그대의 法身佛이며, 그대 마음의 無分別 광명이 그대의 報身佛이며, 그대 마음의 無差別 광명이 그대의 化身佛이다. 이 세 가지 몸은 바로 그대이니, 지금 목전에서 범문을 듣는 사람이다. 다만, 밖을 향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功用이 있는 것이다.²¹⁾

③ 道流여! 山僧의 견해에 의하면, 報·化佛의 머리를 앉아서 굽는다. 十地보살은 뜨내기며, 等覺·妙覺은 형통에 얽힌 이들과고, 아라한과 벽지불은 변소의 더러움이며, 보리·열반은 당나귀를 매어 두는 말뚝이다. 어째서 이러나 하면, 다만 도류들이 아승지겁이 공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일 眞正한 道人이라면 이러하지 않다. 능히 인연 따라 옛 업을 소멸하며 자유롭게 웃을 입는다.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아서 한 생각도 佛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어째서 이러한가? 古人이 말하기를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 부처는 생사의 큰 짐중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²²⁾

④ 너의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 魔이다. 네가 만약 방법이 생멸이 없고 생각이 幻化와 같으며 一塵一法도 있는 것이 없어서 곳곳이 다 청정함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귀는 染·淨의 二境이다.

산승의 견해에 의거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 얻는 이는 바로 얻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일체의 시간 속에서 별다른 것이 없다. 설사, 어떤 것이 이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꿈같고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산승이 말하는 것은 다 이러한 것이다.²³⁾

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잘못알지 말아야 한다. 설사, 닦아서 얻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생사의 업이다. 육도만행을 다 닦아야 한다고도 말들을 하나 나의 견해로는 다 업을 짓는 것이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도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며,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고, 경전을 보고 교설을 보는 것도 또한 업

20) 「임제록」, 《示衆》「대정장」 47·501-502.

21) 《시중》「대정장」 47·497중.

22) 《시중》「대정장」 47·497하.

23) 無佛無衆生 無古無今 得者便得 不歷時節 無修無證 無得無失 一切時中 更無別法 設有一法過此者 我說如夢如化 山僧所說 皆是, 《시중》「대정장」 47·498중.

을 짓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는 일없는 사람이다(佛與祖師 是無事人). 그러므로 有漏有爲와 無漏無爲가 청정한 업이다.²⁴⁾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임제선풍에서는 닻음과 증득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제는 철저한 祖師禪家風에 의하여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心外無法). 그래서 임제는 心淸淨이 佛이고 心光明이 法이며, 法報化 三身佛이 모두 마음의 광명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는 것은 모두가 어리석음이며 잘못된 집착임을 임제는 강조한다. 마음 밖의 것은 십지보살도 떠돌이이며, 等妙二覺도 형틀에 얽힌 이들이고, 보리·열반도 당나귀를 매는 말뚝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파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마음을 떠나서는 어느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임제의 선풍이다. 그리고 마음은 無形·無體·無生·無滅이기 때문에 부처도 중생도 없으며 修證도 得失도 없는 일이므로 얻으려면 바로 얻어서 순서도 절차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임제선풍을 頓悟頓修의 선풍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돈오돈수가 될 수 있는 것은 ‘無修無證·更無別法の 宗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참으로 닻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면 돈오돈수는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임제선은 철저히 無修無證·不歷時節의 선풍이다. 이러한 종지의 선풍은 매우 고준하고 탈속한 품격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탈속하고 자재로운 품격은 임제선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2) 殺佛殺祖의 선풍

임제의 법어에는 殺佛殺祖라는 말이 많이 보인다. 이는 ‘平常心이 道’임을 강조하는 조사선풍의 선양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임제록」에서 직시한 살불살조의 언어는 그 의미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너희들이 부처를 구하면 佛魔에게 이끌리고 조사를 구하면 祖魔에게 묶인다. 너희들이 구함이 있으면 다 괴로움이다. 일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보통의 비구들은 學人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님은 구경의 경지이니 3아승지겁을 수행해서 결과가 원만해진 뒤에 비로서 도를 이루었다’고 한다. 道流여! 그대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구경의 경지에 올랐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80년 후에 구시라성의 雙林樹 사이에 가서 옆으로 누어 돌아가셨겠는가?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사와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너희들이 32상과 80종호가 부처라고 한다면 轉輪聖王도 여래가 된다. 이런 모습도 幻化임을 분명히 알겠다.²⁵⁾” 이같은 법어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깨우쳐 주는 殺佛殺祖의 어록도 있다. “도류여!

24) 《시중》「대정장」 47·499중.

25) 《시중》「대정장」 47·499하.

그대들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말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대로 바로 죽어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며, 권속을 만나면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하여 사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다 벗어나서 자재롭게 된다.²⁶⁾” 이렇게 임제의 범어에는 살불살조의 내용이 示說되어 있다.

그러면, 살불살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제록」에는 부처·조사·아라한 등을 죽여야 한다는 하나하나의 의미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五無間業을 통해서 죽임의 의미를 시설하고 있다. “大德이여! 五無間業을 지어야 해탈을 한다.’하니 묻기를 ‘어떤 것이 오무간업입니까?’ 하였다. 이에 임제는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해치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등이다. 이것이 오무간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묻되 ‘어떤 것이 아버지입니까?’ 하였다. 임제는 말했다. ‘無明이 아버지이다. 그대의 마음이 起滅하는 곳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메아리가 허공에 울림과 같다. 이에 곳을 따라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다’ ‘어떤 것이 어미입니까?’ ‘貪愛가 어미이다. 그대의 마음이 欲界에 들어가서 탐애할 대상을 찾아보아도 오직 체법이 공한 것임을 보아 어느것에도 집착함이 없는 것이 어미를 죽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님 몸의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가 청정세계를 향하여, 마음이 알음알이를 내어 곳곳에 어두움이 없는 것이 부처님 몸의 피를 내는 것이다’ ‘어떤 것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일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번뇌가 허공과 같아서 의지할 것이 못됨을 바르게 통달하는 것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인연이 공하고 마음이 공하며 법이 공함을 보아 一念이 끊어져서 일이 없는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는 것이다. 大德이여! 만약 이렇게 통달한다면 凡·聖의 이름에 걸리는 일을 면하게 된다.’²⁷⁾”

이와 같이 「임제록」에서는 죽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佛祖는 아름답게 엮어매는 명칭이다.²⁸⁾”라고도 하며, “도류여! 부처를 가지고 구경이라 여기지 말아라. 내가 보기에는 똥·오줌 담아두는 데와 같다. 보살과 아라한은 모두 목에 찌우는 칼과 손발에 잠그는 자물쇠처럼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문수가 칼을 가지고 구담(釋尊)을 죽이려 했고, 양굴도 칼로 釋氏를 해하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하면 이 사람은 부처를 잃으며,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 이 사람은 도를 잃으며, 어떤 사람이 조사를 구하면 이 사람은 조사를 잃는다.²⁹⁾”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26) 《시중》「대정장」 47·500중.

27) 《시중》「대정장」 47·502중.

28) 佛祖 是賞繫底名句, 《시중》「대정장」 47·500하.

29) 若人求佛 是人失佛 若人求道 是人失道 若人求祖 是人失祖, 《시중》「대정장」 47·502하.

이러한 법어들을 헤아려 보면, 임제선풍에서의 殺佛殺祖의 의미는 ‘無求·無著·無事·自在’의 宗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達磨의 법어로 전승되어 오는 ‘有求皆苦·無求皆樂’과 慧能禪師(638~713)의 법어로 전해지는 ‘不思善·不思惡’의 禪旨를 생활속에서 보다 활발하게 구현하는 선풍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형적인 조사선풍의 면목과 함께 임제다운 쾌활한 가풍을 볼 수 있다. 임제선풍의 특징은 이처럼 호쾌하고 고준한 데서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3) 無依道人的 선풍

「임제록」에는 ‘無位眞人’³⁰⁾이란 말이 매우 의미있게 보이며 ‘隨處解脫’³¹⁾ ‘隨處作主·立處皆眞’³²⁾ 등의 구절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佛法은 쓸 데가 없으니 평상시 대로 일 없으면 그만이다. 용변보고, 옷 입고, 밥 먹으며 곤하면 바로 눕는다. 어리석은 이는 나를 웃지만 지혜로운 이는 안다.”³³⁾는 말도 있고 “배고프면 밥먹고 잠오면 잠잔다.”³⁴⁾는 언설도 접하게 된다. 이런 법어들은 모두가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禪家의 日用事임을 느끼게 되지만 임제선풍에서는 더욱 부각되어진 내용이다. 이같은 언설은 “가고자 하면 바로 가고, 앉고자 하면 바로 앉아서 한 생각도 佛果를 바라는 일이 없다.”³⁵⁾는 법어와 함께 無依의 선풍을 선양한 것이다.

「임제록」에서는 또 ‘眞正見解·眞出家人·眞學道人·無依道人’의 이름으로 無依의 선풍을 들날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도류여! 잘못 알지 말아라. 세간·출세간 법이 다 자성이 없으며, 다만 空名만 있는 것인데 名字도 역시 공한 것이다. 실사 있더라도 다 이것은 依變하는 경계이다. 菩提依·涅槃依·解脫依·三身依·境智依·菩薩依·佛依가 있다. 그대가 의변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무엇을 찾겠는가. ……부처의 6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색계에 들어가되 색계에 미혹하지 않으며, 성계에 들어가되 성계에 미혹하지 않으며, 향계에 들어가되 향계에 미혹하지 않으며, 미계에 들어가되 미계에 미혹하지 않으며, 촉계에 들어가되 촉계에 미혹하지 않으며, 법계에 들어가되 법계에 미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色聲香味觸法이 다 空相임을 통달하면 이러한 ‘無依道人’은 엮어낼 수가 없다. 眞學道人是 부처를 취하지 않으며, 보살·아라한을 취하지 않으며, 三界의 수승함을 취하지 않는다. 시방의 제불이 나타나도 한 생각도 기뻐함이 없고, 악도 지옥이 나타나도 한 생각도 두려워함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나는 제법이 공상인데 變現하면 있고 변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三界가 唯心이며, 萬法이 唯識이다. 夢幻과

30) 《上堂》「대정장」 47·496하.

31) 《시중》「대정장」 47·497하.

32) 《시중》「대정장」 47·498상.

33) 《시중》「대정장」 47·498상.

34) 飢來喫飯 睡來合眼, 《시중》「대정장」 47·502하.

35) 要行即行 要坐即坐 無一念心 希求佛果, 《시중》「대정장」 47·497하.

空花에 어찌 마음을 두겠는가.³⁶⁾”라고 선설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법어이다.

이상의 법어들을 고찰해 보면 無依道人是 ‘無位真人·眞出家人·眞學道人’등의 명칭으로도 표현되며, 無依道人的 선풍은 ‘不惑·不取·無喜·無怖’의 선풍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풍을 통하여 임제선풍의 특징을 한결 더 선명히 이해하게 된다. 임제선의 宗旨에 있어서 無修無證과 殺佛殺祖 등의 禪旨는 無依道人的 인격으로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선종의 견해는 바로 지금이요, 다시 시절이 없다.³⁷⁾” “쓸 때는 바로 쓰고, 안 쓸 때는 바로 쉬다.³⁸⁾”는 구절들은 무수무증·살불살조의 선지를 생활속에서 體現하는 無事·無依의 閑道人 선풍을 선양한 것이다. 이처럼, 임제선에서의 無依道人的 日用事는 조사선가풍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일이다. 快活無拘하고 脫俗自在한 임제선풍에서 조사선가풍의 진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4) 示教接化의 綱要

「선가구감」에서는 ‘臨濟家風’에 대하여 “맨손의 한 칼로 殺佛殺祖하며,古今을 玄要에 서 가리고, 龍蛇를 主賓에서 시험한다. 金剛王寶劍을 잡아 부질없는 精靈을 쓸어버리고, 사자의 위엄을 떨쳐 쓸데없는 心膽을 없애버린다. 임제종을 알려는가? 푸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고 평지에 파도를 일으킨다.”라고 기록했으며, 臨濟宗旨를 밝히는 항목에는 ‘三句·三要·三玄·四料揀·四賓主·四照用·四大式·四喝·八棒’의 명목과 간략한 해석을 기재하고 있다.³⁹⁾

이는 모두 임제선사가 禪子들을 接化하는 示教의 法風이었다. 이 중에서 四大式·八棒은 「임제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임제선풍이 전승되어 오면서 임제선법을 선양하는 방법으로 정형화된 항목이 아닌가 한다. 四喝·四賓主·四料揀은 「임제록」에 분명한 문적이 있다. 그리고 임제선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알려진 것이다. 四照用에 대해서는 「임제록」에는 보이지 않고 《馬防序》문에 ‘照用同時’⁴⁰⁾란 말이 있으며, 「人天眼目」권제1에 그 내용의 기술이 있다.⁴¹⁾ 三句는 「임제록」에서 “第一句에서 얻으면 佛祖의 스승이 되고, 第二句에서 얻으면 人天의 스승이 되고, 第三句에서 얻으면 자기 구제도 못한다.⁴²⁾”고 示說하고 있음이 보이며, 三玄·三要에 있어서는 「임제록」에 “一句에 모름지기 三玄門을 갖추어야 하고 一玄門에 모름지기 三要를 갖추어야 한다. 權도 있고 用도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알겠는가.⁴³⁾”라는 법어가 있을 뿐, 그 이상의 설명은 볼 수 없다. 이

36) 《시중》「대정장」 47·499하-500상의 요약.

37) 如禪宗見解……直是現今 更無時節, 《시중》「대정장」 47·498중.

38) 要用使用 不用便休, 《시중》「대정장」 47·502상.

39) 「禪家龜鑑」, 「韓國佛教全書」(이하 「한불」로 약칭) 7-644~5.

40) 「대정장」 47·496중.

41) 宋 智昭集(1188), 「人天眼目」, 「대정장」 48·304상.

42) 「대정장」 47·502상.

43) 「대정장」 47·497상.

三玄·三要는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것과 같이⁴⁵⁾ 처음에는 ‘體中玄·句中玄·玄中玄’ 등의 말은 없었다.

「선가구감」에는 ①體中玄：三世一念等 ②句中玄：徑截言句等 ③玄中玄：良久棒喝等이라 三玄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三要에 대해서는 ①一要：照即大機 ②二要：照即大用 ③三要：照用同時라 명기하였다. 이러한 三玄·三要에 대한 해석도 후대의 임제종 계승에서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三句 三玄 三要를 비롯하여 「임제록」에 보이는 많은 示教法風들이 敎家에서 말하는 修證漸次나 敎義行相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임제선풍은 어디까지나 無修無證·無依道人的 선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제록」의 여러 禪語要句와 棒喝 등의 示行은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示衆接化의 家風일 따름이다. 「임제종지」에는 다음과 같은 계승이 보인다.

| | |
|---------|--------------------------------|
| 三玄三要事難分 | 삼현 삼요는 분간하기 어려우니 |
| 得意忘言道易親 | 뜻알고 말잇으면 도에 가깝네. |
| 一句明明該萬象 | 일구에 분명히 만상을 포함하니 |
| 重陽九月菊花新 | 구월구일에 국화가 새롭도다. ⁴⁶⁾ |

이렇게 임제선풍에서는 對機接化에 있어서도 三句·四料揀·四賓主·四喝 등 순수 조사선의 가풍임을 알 수 있다. 임제선풍은 宗旨도 고준하며 접화하는 機用도 선문의 본분 가풍을 선양하고 있는 점을 역력히 확인하게 된다. 순수 조사선풍 중에서도 임제선풍은 더욱 활발한 기상을 보인다. 그래서 임제가풍을 일러서 “푸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고 평지에 파도를 일으킨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는 임제선풍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西山禪風

1. 西山의 生涯

西山禪師는 다음의 기록에 의하면

① 《上完山處府尹書》「清虛集」 권7. 「한불」 7-719.

45) 臨濟但曰 一句中具三玄 一玄中具三要 有玄有要而已 初未嘗目爲 句中玄 意中玄 體中玄也, 宋 覺範慧洪 (1071~1128)撰, 「臨濟宗旨」 「卍續藏」 111·172하.

46) 주45) 문헌. 「卍續藏」 111·171하.

- ② 李廷龜撰《西山清虛堂休靜師碑銘并序》(妙香山 碑文, 1630년 立) 「朝鮮寺刹史料」하 (조선총독부, 1911) pp.255~261.
- ③ 李廷龜撰《西山清虛堂休靜大師碑銘并序》(表訓寺 碑文, 1632년 立) 「朝鮮金石總覽」하 (조선총독부, 1919) pp.852~5.
- ④ 費月敬軒(1544~1633)撰《清虛大師行蹟》「한불」8-120~1.
- ⑤ 鞭羊彥機(1581~1644)撰《西山行蹟草》「한불」8-254~5.
- ⑥ 張維撰《大興寺清虛大師碑銘并序》(大興寺 碑文, 1647년 立). 「朝鮮佛教通史」상 (경희출판사 영인본, 1918) pp.470~2.
- ⑦ 金洛一撰《西山大師行錄》(1675) 「조선사찰사료」 상 pp.320~3.

조선조 중종 15(1520)년에 示生하여 선조 37(1604)년에 示寂하였다.

法名은 休靜이고 法號는 清虛堂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清虛子·妙香山人·頭流山人·白華道人 등이라 自號하였다. 그리고 妙香山에서 오래 住錫하였기 때문에 西山이라 호칭하게 되었다.

西山이 태어난 곳은 평안도 安陵이며 부친은 完山 崔氏이고 모친은 漢南 金氏이다. 西山은 12세에 지방 郡守의 추천으로 서울의 成均館에 입학하여 학업을 연마했다. 그 후 15세가 지난 다음에 뜻한 바 있어 頭流山·七佛洞·靑鶴洞 등지를 유람하다가 崇仁老宿을 만나 佛敎의 經論을 보게 되었다. 이때에 西山은 「傳燈錄」「拈頌集」「華嚴經」「圓覺經」「楞嚴經」「法華經」「維摩經」「般若經」 등의 많은 佛典을 탐독하였다.

그러다가 西山은 佛法的 요묘한 뜻을 깨달은 바 있어 20세를 전후한 나이에 得度受戒하였다.⁴⁷⁾ 서산은 득도수계한 후 頭流山·五臺山·楓岳山 등에서 參學修禪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나이 33세 되던 해(壬子, 1552)에 僧科에 응시하여 及第해서 洛山 住持와 禪宗傳法師를 역임했고⁴⁸⁾ 36세(乙卯, 1555)에 敎宗判事와 禪宗判事に 취임했다. 서산은 이 무렵의 행적에 대하여 스스로 “大選의 이름을 얻은 기간이 1년, 住持의 이름을 얻은 기간이 2년, 傳法的 이름을 얻은 기간이 석 달, 敎判의 이름을 얻은 기간이 석 달, 禪判의 이름을 얻은 기간이 3년이다. 그 사이에 혹은 고통스럽고 혹은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 중에 꿈결같이 5~6년이 지났다.⁴⁹⁾” “清虛子는 嘉靖 乙卯(36세)년 여름에 判敎宗事가 되고 같은 해에 또 判禪宗事가 되었다. 그 후 丁巳年(38세) 겨울에 풍악산으로 들어갔으며 戊午年(39세) 가을에 頭流山으로 향했다.⁵⁰⁾”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이 중에서 敎宗事는 華嚴宗事로, 禪宗事는 曹溪宗事로 기록한 예도 있다. 西山은 「廢聖堂行錄」을 짓고 書尾에 ‘判大華嚴宗事 判大曹溪宗事 休靜 謹書’⁵¹⁾ 라 하였다. 이는 西

47) 서산의 출가년도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拙稿《西山大師의 頓漸觀》「돈점논쟁의 역사와 현재」 pp.167~188. (민족사학술총서23, 1992. 민족사.)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48) 壬子榜禪科出身 初行洛山住持 次行禪宗法師. 제월경원찬 《청허대사행적》「한불」8-120하.

49) 《상완산노부운서》「청허집」 권7, 「한불」7-721상.

50) 《自樂歌》「청허집」 권6, 「한불」7-716하.

51) 1690년 경상도 울산 雲興寺 開刊板(현재 통도사 소장)

山이 華嚴·曹溪 兩宗判事를 겸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산은 이렇게 나이 33세에 서부터 38세에 이르기까지 5~6년간 住持와 禪·教宗務를 맡아서 보다가 다시 山門으로 들어가 修禪과 行化에 힘썼다. 서산이 判禪宗事 소임을 사직하고 老年期에 이르도록 道風을 선양한 곳은 金剛山·智異山·太白山·五臺山·妙香山 등의 여러 寺庵들이었다.

선조 25년(1592), 서산의 73세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남에 선조는 서산에게 ‘八道十六宗都摠攝’을 제수하고 국난을 弘濟해 줄 것을 教諭하였다. 이에 서산은 전국에서 일어난 義僧들을 인솔하여 壬亂의 평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이때 明 提督 李如松은 서산에게 다음과 같은 詩를 贈進하여 치하하였다.

| | |
|-------|--------------------------------|
| 無意圖功利 | 공리에 생각이 없이 |
| 專心學道禪 | 수도에만 전념하셨네. |
| 今聞王事急 | 이제 왕사가 급함을 듣고 |
| 摠攝下山巔 | 총섭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네. ⁵²⁾ |

서산은 그 뒤 선조가 도성으로 돌아온 후에 僧軍의 업무를 제자인 惟政과 處英에게 맡기고 妙香山으로 돌아갔다. 宣祖는 서산에게 ‘國一都大禪師禪教都摠攝扶宗樹教普濟登階尊者’라는 존호를 내렸다. 서산은 묘향산으로 돌아간 후에도 승려들의 요청에 의하여 금강산 報德寺에서 禪教大會를 개설했으며, 84세 시에는(선조 36년, 1603) 묘향산 普賢寺에 《娑婆教主釋迦世尊金骨舍利浮圖碑》文을 스스로 짓고 써서 건립하였다.⁵³⁾ 그리고 이듬해인 85세 시에 제자들을 묘향산 圓寂庵에 모이게한 후 분향설법하고 자신의 影幀에 “80년 전에는 네가 나였고, 80년 후에는 내가 너이다.⁵⁴⁾”라고 쓴 다음 正月 二十三日에 遷化하였다. 서산의 法臘은 65의 전후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산은 詩文과 著述도 많이 남겼으니 世人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로는 다음의 詩頌이 유명하다.

| | |
|---------|----------------------|
| 萬國都城如蟻蛭 | 만국의 도성은 개미떼 |
| 千家豪傑若醜鷄 | 천가의 호걸은 초파리. |
| 一窓明月清虛枕 | 달밝은 창가에 누웠으니 |
| 無限松風韻不齊 | 들려오는 솔바람 곡조도 한이 없구나. |

| | |
|-------|-------------------|
| 主人夢說客 | 주인은 꿈에 나그네를 말하고 |
| 客夢說主人 | 나그네는 꿈에 주인을 말하네. |
| 今說二夢客 | 지금 말하는 두 꿈꾸는 나그네여 |

52) 이정귀 찬 표훈사 비문, 「조선금석총람」하, p.854.

53) 「조선금석총람」하, pp.809~812.

54)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 주52) 문헌, p.854.

亦是夢中人 모두가 꿈속의 사람이다.⁵⁵⁾

저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① 「禪家龜鑑」 ② 「三家龜鑑」 ③ 「心法要抄」 ④ 「禪教釋」 ⑤ 「禪教訣」 ⑥ 「清虛堂集」(7권) ⑦ 「說禪儀」 ⑧ 「雲水壇諷詞」 ⑨ 「碧松堂行蹟」 ⑩ 「芙蓉堂行蹟」 ⑪ 「敬聖堂行蹟」

이상과 같이 서산은 출가하기 전에는 儒家의 學舍에서 儒學을 연마했으며, 寺院에 와서는 득도하기 전에 「전등록」 「염송집」 「화엄경」 「법화경」 등의 여러 경론을 修學하고 탐독하였다. 受戒한 후에는 諸方의 道場을 參訪하며 10여년 간 修禪精進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僧科에 及第한 후에는 수 년 간 여러 公務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산은 다시 山門佛刹로 들어가 修禪과 行化에 힘썼다. 서산은 때때로 기회있을 적에는 詩頌도 읊으며 撰述도 하면서 인연이 주워지는 대로 道風을 선양하였다. 임란과 같은 국가의 위급한 일을 당해서는 스스로 앞장서서 義僧軍을 인솔하기도 했다. 그래서 서산에게는 몇가지의 직함과 賜號를 받게 되었다. 서산이 30대와 70대를 합해서 7~8년 간에 걸쳐 역임한 職位는 ① 洛山寺住持 ② 禪宗傳法師 ③ 判大華嚴宗事 ④ 判大曹溪宗事 ⑤ 八道十六宗都摠攝이며, 朝廷으로부터 받은 호는 ‘國一都大禪師……登階尊者’이다. 그리고 正祖18년(1794)에 王命으로 西山·惟政·處英 등 三師眞影을 大興寺의 表忠祠와 묘향산의 酬忠祠에 봉안하고 祭需를 官給하여 歲祀를 지내도록 할 때에 西山의 影題를 ‘行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史曹判書兵曹判書僧義兵大將賜紫國一都大禪師兼八道禪教都摠攝大覺登階尊者西山清虛堂大和尚諱休靜之眞影’이라 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서산의 생애에는 ① 儒學研磨 ② 佛典學習 ③ 修行精進 ④ 道風宣揚 ⑤ 公職履行 등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서산의 생애에서 보인 이러한 면은 서산의 선풍과 조선 중·후기 선풍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2. 西山의 禪風

1) 祖師禪宗旨의 禪風

西山의 禪教觀은 「禪教釋」 「禪教訣」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서산은 「선교석」에서 “圓教는 無碍緣起의 見解가 있고 頓教는 離名絕相의 見解가 있으나 禪門에는 헤아릴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다.(無摸揅 沒巴鼻)⁵⁷⁾”고 하였고 「선교결」에서는 “세존께서 一代에 걸쳐

55) 주52) 문헌, pp.853~4.

56) 「조선불교통사」 상, p.574.

57) 「한불」 7-655하.

말씀한 교법은 비유하면, 3종의 자비 그물을 생사의 바다에 쳐서 작은 그물로는 작은 고기를 건지고(人天小乘教), 중간 그물로는 중간 고기를 건지고(緣覺中乘教), 큰 그물로는 큰 고기를 건져서(大乘圓頓教) 모두 열반에 머물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교의 순서이다. 그 중에서 3종의 그물 밖으로 벗어나서 바로 높은 하늘에 올라 감로수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한 종류가 있다.(教外別傳之機) 이는 선이 교와 다른 점이다.⁵⁸⁾ 이렇게 선과 교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서산은 「心法要抄」에서 “선교가 一念中에서 일어났으니 心意識이 미칠 수 있는 경지로서 思量에 속하는 것은 教이고, 심의식이 미칠 수 없는 경지로서 參究에 속하는 것은 禪이다. 禪師의 보인 바로서 一句中에 다 갖추어져서 前後가 없는 것은 禪이고, 제불의 開示로서 事事無碍法門이 구족하나 닦음도 있고 증득함도 있고 階級次第와 先後가 있는 것은 教이다.⁵⁹⁾”라고 말하고 있다. 서산의 이러한 선교관은 「禪門寶藏錄」(1293년 작) 권상의 《禪教對辨門》⁶⁰⁾의 선교관을 宗承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서산이 말하는 선은 인도의 思惟禪이나 天台宗의 止觀禪, 北宗禪계통의 漸修禪이 아니고 南宗禪계통의 五家七宗禪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五家七宗의 선풍을 통틀어서 편의상 ‘祖師禪’이라 한다면 서산이 선교를 구분하여 천명하는 선은 조사선이다. 서산은 조사선의 특징을 ‘沒理路·沒義路·沒心路·沒語路·沒滋味·無摸搯·沒巴鼻의 徑截門’이라 하며 徑截門의 수행을 ‘活句’수행이라고도 하였다.

서산은 경절문 활구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중국의 임제종가풍에서처럼 ‘看話禪’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산의 찬술서에는 公案參究의 간화선 수행을 역설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된다. 서산의 저술 중에서 공안참구의 간화선법을 강조한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인다.

① 제불·중생·三途가 일어난 연유

佛性を 보려면 마음이 불성인 줄 알아야 하며 삼악도를 면하려면 마음이 삼악도인 줄 알아야 한다. 精進은 석가모니불이며, 直心은 아미타불이다. 明心은 문수보살이며, 圓行은 보현보살이다. 慈悲는 관세음보살이며, 喜捨는 대서지보살이다. 瞋心은 지옥이고 貪心은 아귀이며, 癡心은 축생이니 姪殺도 그러하다. 起心은 天魔이고 不起心은 陰魔이며,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煩惱魔이다. 그러나 우리의 正法中에는 이런 일이 본래 없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바로 깨달으려면 金剛刀(話頭)을 잘 잡아라. (參究) 마음을 돌이키는 一念中에 만법은 다 幻化가 된다. 환화가 됨도 또한 병이니 한 생각을 모름지기 버려야 한다. 버리고 또 버리면 옛부터 天真面이다.⁶¹⁾

58) 「한불」 7-567중·하.

59) 「한불」 7-649상·중. 서산의 선교관에 대해서는 拙稿 주47)번 문헌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60) 「한불」 6-470-474.

61) 「清虛集」권4, 「한불」 7-703상.

② 寶大師에게 보임

| | |
|-------|-----------------------------|
| 有物沒巴鼻 | 무엇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없다. |
| 常在動用中 | 항상 생활속에 있으되 |
| 佛祖說不及 | 불조가 말하지 못하나니 |
| 何況寂默通 | 어찌 적묵으로 통하겠는가. |
| 欲識這箇事 | 이 일을 알고자 하면 |
| 須參祖師關 | 모름지기 조사관을 참구하라. |
| 發信大如海 | 믿음을 일으키는 크기를 바다같이 하고 |
| 立志卓如山 | 뜻을 세우는 높기를 태산같이 하라. |
| 日夜四威儀 | 밤낮 行 住 坐 臥에 |
| 盡力起疑團 | 힘을 다해 화두를 참구하라. |
| 冷淡沒滋味 | 냉담하여 재미가 없을 적에 |
| 話頭獨單單 | 화두를 더욱 분명히 참구하라. |
| 識沈心路絕 | 의식이 잠기고 생각이 끊어질 때 |
| 丈夫骨應寒 | 장부의 뼈가 차갑도록 힘쓰라. |
| 自舉自疑時 | 스스로 참구되고 스스로 의심되면 |
| 當人得力處 | 공부인의 득력하는 때이다. |
| 得到這田地 |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
| 可滅生死炬 | 생사의 불을 끌 수 있다. |
| 若不從斯語 |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
| 驢年始得去 | 영영 이루지 못하리라. ⁶²⁾ |

③ 禪頌

| | |
|-------|-------------------|
| 無量行門中 | 한없는 수행문 중에서 |
| 參禪爲第一 | 참선이 제일이다. |
| 千千萬萬生 | 천천 만만의 중생이 |
| 直坐如來室 | 바로 여래실에 앉게 된다. |
| 歷歷提公案 | 역력히 공안을 의심하여 |
| 莫浮亦莫沈 | 산란하게 하지 말고 졸지 말라. |
| 虛明如水月 | 허명히 하기를 수월같이 하고 |
| 緩急若調琴 | 완급은 거문고줄을 고르듯 하라. |
| 病者求醫志 | 병자가 의원을 찾듯이 하고 |
| 嬰兒憶母心 | 영아가 어머니를 생각듯이 하라. |
| 做工親切處 | 공부를 친절히 할 때에 |
| 紅日上東岑 |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오르리라. |
| 活句留心客 | 활구에 마음을 두는 이에게 |

62) 「정허집」권1, 「한불」 7-670중.

| | |
|-------|----------------------------|
| 何人作得雙 | 누가 견줄 수 있으랴. |
| 報緣遷謝日 | 세상의 인연이 다하는 날 |
| 閻老自歸降 | 염랑왕이 스스로 항복한다. |
| 要免三途海 | 삼악도를 면하려면 |
| 須參祖師禪 | 모름지기 조사선을 참구하라. |
| 光陰眞可惜 | 시간을 진실하게 아껴서 |
| 慎勿等閑眠 | 등한히 잠자지 말아라. |
| 做工先發憤 | 공부에는 먼저 분심을 일으키고 |
| 爲法更亡軀 | 법을 위해서는 몸도 생각지 말라. |
| 活句疑團破 | 활구에서 의심이 부서지면 |
| 方名大丈夫 | 바야흐로 대장부이다. ⁶³⁾ |

이와 같이 서산의 법어에는 ‘活句·祖師關·公案·話頭·疑團·沒滋味·祖師禪’ 등의 단어들에 많을 뿐 아니라 공안참구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산이 조사선 종지의 간화선 수행을 선양하는 선풍임을 의미한다. 無量한 行門 中에서 參禪이 제일이라 한 참선은 곧 간화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산의 선풍은 祖師禪禪風의 간화선 수행을 존중하고 선양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圓融修行的 禪風

그러나 서산이 오직 간화선 수행만을 견지하고 다른 행법을 부정하거나 배척한 것은 아니다. 서산이 東湖禪子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①參禪을 하느냐 ②念佛을 하느냐 ③大乘經을 보느냐 ④秘密呪를 외우느냐⁶⁴⁾”하여 참선·염불·看經·誦呪 등을 다 거론하고 있으며, 「선가구감」에서는 ①參禪 ②持戒 ③持呪 ④禮拜 ⑤念佛 ⑥聽經 ⑦看經 ⑧懺悔 등을 권장하고 入廁五呪까지도 道人の 日用行實에 중요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서산의 일상 법어에서도 毘尼法을 힘써서 지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⁶⁵⁾, 「능엄경」의 十仙篇을 읽으라고 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⁶⁾ 특히 서산이 念佛修行에 대하여 거론한 경우는 문헌의 여러 항목에서 접하게 된다.

① 頭流內隱寂

| | |
|-------|---------------------------|
| 有僧五六輩 | 승려 대여섯이 |
| 築室吾庵前 | 나의 암자 앞에 집을 짓고. |
| 日日論何事 | 나날이 무엇을 논하는가 |
| 念佛皮參禪 | 염불과 참선이더라. ⁶⁷⁾ |

63) 「심법요초」 「한불」 7-650하~651상.

64) 《寄東湖禪子書》 「청허집」 권7, 「한불」 7-725상.

65) 《又示別紙》 「청허집」 권4, 「한불」 7-703중.

66) 《上佛日老》 「청허집」 권7, 「한불」 7-724상.

67) 「청허집」 권1, 「한불」 7-670상.

② 贈性訥禪子

念佛參禪法 염불·참선법이
功成理不差 공이 이루어지면 다르지 않다.
身心如放下 몸과 마음을 다 비우면
枯木定生花 고목에서 꽃이 피리라.⁶⁸⁾

③ 念頌

合掌向西方 합장하고 서방을 향해서
凝心念彌陀 마음 모아 아미타불 생각하노라.
平生夢想事 평생에 생각과 꿈꾸는 일
常在白蓮花 항상 백력화 핀 극락세계에 있도다.

念佛纔開口 염불은 겨우 입을 열 때에
金池已種蓮 금 연못에 벌써 연을 심었도다.
信心如不退 신심이 물러가지 않으면
決定禮金仙 어김없이 금선에게 예배한다.

西方念佛法 서방 염불법은
決定超生死 틀림없이 생사를 초월한다.
心口若相應 마음과 소리가 하나되면
往生如彈指 왕생은 찰나에 된다.

一念踏蓮花 일념에 연화를 밟는데
誰道八千里 누가 팔 천리라 말했는가.
功成待命終 공이 이루어지면 임종을 기다려
大聖來迎爾 대성이 와서 그대를 맞는다.

參禪即念佛 참선이 염불이며
念佛即參禪 염불이 참선이다.
本性離方便 본성에는 방편을 여의어
昭昭寂寂然 소소하고 적적하다.⁶⁹⁾

④ 幀跋

弟子 兼判禪教事都大禪師 某는 極樂教主 阿彌陀佛의 尊容 一幀을 公경히 畫成하여 모시고 大誓願을 세웁니다.

願我臨終滅罪障 나의 임종에 죄장이 소멸하여
往參西方大慈尊 서방의 대자존께 가서 뵈옵고
金色光中蒙授記 금색광중에서 수기를 받아
盡未來際度衆生 끝없이 중생제도하기를 발원합니다.
虛空有盡願不盡 허공은 다해도 이 원은 다함이 없습니다.
十方諸佛作證明 十方의 부처님은 증명해 주소서.⁷⁰⁾

68) 《清虛集補遺》「한불」7-733상.

69) 「십범요초」「한불」7-651상·중.

70) 「청허집」권6, 「한불」7-718상.

이렇게 서산은 念佛行法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아미타불상의 탕화에 발문을 통해서 왕생극락하여 중생제도가겠다는 발원까지 한 정도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서산은 조사선 종지의 간화선을 숭상하였으나 염불·간경·송주·持戒 등을 비롯하여 대승불교의 여러 종파에서 형성된 수행가풍을 두루 권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로 서산에게 있어서 圓融修行의 선풍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서산은 禪師이면서도 선수행에 국한하지 않고 염불·간경·송주를 권한 일은 서산선풍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서산시대의 조선불교 상황이 禪宗이면서도 華嚴宗·淨土宗·眞言宗 등의 수행가풍을 두루 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산선풍에서의 원융수행의 가르침이 나타나게 된 것은 조선불교의 문화적 기반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서산이 참선수행에만 專念하고 염불수행 등에만 전념하는 專門修行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원융수행이란 根機에 따라 수행법이 다양하게 필요하며 어떤 行法으로 닦아도 心行이 相應하면 了事人の 경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서산은 선수행에 전념한 선사이면서도 다른 敎家에서 형성된 수행가풍을 원융하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사선 종지를 숭상하는 서산에게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면이다.

3) 福國利生の 禪風

서산은 이미 살피본 바와 같이 33세 시에 洛山寺 住持를 역임한 것을 비롯하여 수 년 간에 걸쳐 공직의 소임을 맡았었다. 서산이 洛山寺 주지에 부임했었음은 霽月敬軒의 《행적》에도 명기되었지만 서산이 지은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題洛山寺方丈

| | |
|-------|---------------------------------|
| 壬子初秋月 | 임자년 초가을에 |
| 遠來住此房 | 멀리서 와 이 방에 머물렀네 |
| 山當東地盡 | 산은 동에서 다하고 |
| 海自北天長 | 바다는 북에서 이어졌네. |
| 郡邑知多少 | 군읍은 얼마나 되는가 |
| 逢瀛又渺茫 | 신선의 나라 끝이 없고나 |
| 開窓吟不耐 | 창을 열면 절로 읊어지니 |
| 朝日出扶桑 | 아침 해가 동해에서 솟아나네. ⁷¹⁾ |

서산은 낙산사 주지소임 외에도 선종판사·교종판사를 역임했으며, 雲水道人으로 도풍을 선양하는 시기에도 여러 佛事에 참여하여 利生興福에 힘썼다. 「청허집」에는 서산이 지은 《寺庵·殿閣記文》《募緣文》《上樑文》《鑄鍾銘》《慶讚疏》《薦靈疏》 등이 많이 수록되었다. 서산은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한결같이 福國利生을 祝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산은 《薦靈疏》에서 “부처님은 지혜의 햇불로서 어두운 세상에 大明을 보이시며, 법보

71) 「청허집」권1, 「한불」 7-672중.

는 자비의 배로서 고훘에 빠진 이를 건져 주시니 佛法에 귀의하지 않으면 어찌 人天을 利益하게 할 수 있겠는가.⁷¹⁻¹⁾”라고 전제하였다. 이는 서산의 依佛利生の 信念을 말하는 것이다.

서산은 佛法에 귀의하여 人天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念願을 “伏願합니다. 主上은 만세를 누리고 聖妃는 千秋를 누리며, 白額(猛獸)이 자취를 감추고 赤眉(流賊)가 영영 없게 하소서. 시주들은 생사를 허무의 밖으로 몰아내고 열반을 적막의 물가에서 부셔 버리고 大乘衣를 입고 正覺床에 앉아 菩提漿을 마시며 禪悅食을 먹어서 福海는 넓고 깊어 衆流를 삼키고 壽山은 높이 빼어나 群峯에 우뚝하게 하소서. 또한 법계의 중생이 지혜가 어둠에서 밝아지고 꿈이 잠에서 깨어나, 十軍과 三惑은 그림자가 허황한 데서 없어지고 智劍과 慧刀는 實地에서 날카롭게 하소서.⁷²⁾” 이렇게 축원하고 있다.

그리고, 서산은 妙香山 普賢寺에 세운 《娑婆教主釋迦世尊金骨舍利浮圖碑》文에서 “우리 동방에는 처음에 君長이 없었고 諸侯가 배열되지 않았었다. 神人 檀君이 太白山(묘향산) 神檀樹 밑에서 일어나 始祖의 王이 되어 堯와 더불어 나란히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태백산은 처음에는 한 나라의 왕을 낳아 조선 국민으로 하여금 東夷의 호를 길이 벗게 하였었고, 마침내는 三界師를 봉안하여 동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成佛의 因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이 산의 신령스러움이 아니겠는가. 위대하도다! 한갓 산만 중한 것이 아니라 나라도 또한 중하며, 나라만 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또한 중하다. 그 品秩을 논하면 惟政禪子가 慈藏法師보다 못하지 않고 太白山이 靈鷲山보다 못하지 않다.⁷³⁾”고 기술하였다.

이같은 서산의 《願文》과 《碑文》은 國王과 國民이 壽福增長·皆共成佛하며, 단군은 요임금과 나란히 하고 묘향산은 영축산과 대등하여 국력은 중국에 못하지 않고 佛法은 인도에 못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산은 福國利生·廣度群迷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진하였다. 그래서 국난을 당해서는 雲水道人이면서도 城市의 塵人과 같이 戰場에도 참여했던 것이다. 서산의 이러한 수행선풍은 언뜻 보면 「華嚴經」十地品 제7의 遠行地에서 “비록 空·無相·無願三昧를 닦으나 자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비록 燄의 평등법을 얻었으나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며, 비록 觀空智의 門에 들었으나 부지런히 복덕을 모으며, 비록 멀리 三界를 여의었으나 삼계를 장엄하며, 비록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음을 아나 능히 청정한 妙行으로써 불토를 장엄하며, 비록 燄의 法身이 본성에 몸이 없음을 아나 相好로써 자신의 몸을 장엄한다.⁷⁴⁾”는 교설을 연상하게

71-1) 「청허집」권6, 「한불」 7-712하.

72) 《普賢寺普光殿改瓦慶讚疏》「청허집」권6, 「한불」 7-712하.

73) ① 「조선금석총람」권하, p.810

② 「청허집(보유)」, 「한불」 7-734중·하.

74) 「대정장」 10-196상.

한다.

그러나 서산이 華嚴宗의 家風을 선양한 華嚴禪 修行者는 아니다. “野鬼窟에서 정신을 한가로이 하고, 衲僧居處에서 눈을 밝게 하였네. 조사도 쓸 데 없고 부처도 쓸 데 없으니, 神光이 허공을 불태우네.⁷⁵⁾” “산은 스스로 무심히 푸르고, 구름은 스스로 무심히 희네, 그 중에 한 사람도, 또한 무심객이로다.⁷⁶⁾”라고 읊은 것처럼 서산은 어디까지나 不思議・格外禪旨에 입각한 祖師禪風의 本分宗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華嚴家의 보살도 수행자에 못하지 않게 많은 佛事에 참여하여 福國利生을 염원한 것은 조선시대의 특수한 문화기반에서 형성된 서산선풍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서산은 조사선풍을 선양하는 선사이면서도 念佛修行을 비롯한 敎家의 가풍들을 배격함이 없이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불사를 통하여 福國利生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示現하고 있다. 이 점은 서산선풍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탐구와 조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IV. 兩 禪風의 비교

이상에서 臨濟와 西山의 두 선풍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두 선풍이 간직하고 있는 특징을 좀더 분명히 이해하려는 뜻에서 兩 禪風의 대체적인 면만이라도 비교하여 고찰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두 선사의 生涯 부분을 대조하여 다시 돌아보면, 임제와 서산이 공통성을 가지는 면은 두 선사 모두가 禪門修行을 하기 전에는 三藏佛典을 탐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行化因緣에는 크게 다른 면이 보인다. 臨濟에게 있어서는 住持職 등의 公務를 임명받은 사실이나 친히 저술을 남긴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西山은 洛山寺 住持・禪敎兩宗判事・八道十六宗都總攝 등을 역임하고 朝廷으로부터 ‘國一都大禪師禪敎都總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라는 법호를 받았다. 그리고 서산에게는 「선가구간」을 비롯한 10여종의 저술이 전해지고 있다. 이점은 임제와 크게 다른 면이라 하겠다.

한편, 두 선사의 法統에 대한 談論과 臨終法語로 전해오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선풍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받는 바가 적지 않다. 임제는 황벽선사가 百丈으로부터 물려받은 禪板과 机案을 전해주려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우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런데 서산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서산은 범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력한 일은 볼 수 없으나 「벽송당행적」을 찬술하면서 “碧松智嚴禪師(1464~1534)는 「大慧語錄」과

75) 《題檜巖方丈》「청허집」권2, 「한불」 7-684중.

76) 《題一禪庵壁》「청허집」권2, 「한불」 7-687하.

「高峯語錄」을 보고 크게 깨달아 평생을 통하여 발휘한 것이 大慧·高峯의 法風이다. 大慧는 六祖의 17代 嫡孫이고 高峯은 임제의 18代 嫡孫이다. 벽송선사는 멀리 있는 海外的 사람으로서 500년 전의 宗派를 이었으니 이것은 程明道(1032~1085)·朱晦庵(1130~1200) 등이 천년 뒤에 孔孟의 법을 이은 것과 같다.⁷⁷⁾”고 매우 존중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이는 벽송지엄이 大慧·高峯의 법풍을 이어서 임제·六祖의 家風까지도 遠承하고 있음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는 法統에 대하여 표현하는 선풍이 임제와 다른 면이다. 그리고 임종범어에 있어서도 임제는 臨濟의 正法眼藏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喝’로 답하는 제자에게 “나의 법이 이 눈먼 당나귀에게 가서 없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서산은 자신의 영정에 “80년 전에는 네가 나였고, 80년 후에는 내가 너이다.”라는 글을 손수 쓰고 遷化하였다. 임종범어로 전해 오는 이 두 가지의 機緣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이기에서 풍기는 선풍의 특징으로는 임제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眞正見解’는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示現한 것 같이 보이고, 서산에게 있어서는 正法을 선양하는 데는 어느것도 다 필요한 法緣이라고 가르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임종의 機緣에서도 두 선풍의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두 선사의 行化法風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물론 있으나 서로 다른 면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임제와 서산이 南頓 祖師禪風을 선양하여 禪子들을 接引한 것이다. 이 점은 두 선사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서산은 「선가구감」등의 저술에서 五宗家風을 말하면서 임제종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으며 「청허집」의 여러 문항에서 임제가풍을 존숭히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산은 《江西馬祖大寂禪師·洪州百丈大智禪師·筠州黃檗斷際禪師·鎮州臨濟惠照禪師》등의 「四家錄」중에서 친필로 草錄하여 參玄學徒에게 깨우침을 주었다.⁷⁸⁾ 이는 모두 서산이 조사선풍을 선양하고 임제종풍을 존숭히 여긴 일로서 임제선풍과 서산선풍이 상통하는 면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임제선풍과 서산선풍 사이에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임제선풍에서는 ‘無修無證·不歷時節·隨處無事·隨處作主·無依道人’ 등의 禪旨에 의하여 行化法風에 있어서도 ‘三句·三要·三玄·四料揀·四賓主·四喝’ 등의 法風으로 參學禪子들을 提接하였다. 그밖의 다른 敎家法風 등을 依用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서산은 無修無證의 祖師禪旨에서 日用事를 자재하고 있으나 參學徒의 根機와 業習에 따라 일률적으로 선법만을 권하지 않고 參禪·念佛·看經·誦呪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점은 임제선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家風이다.

77) 「三老行蹟」《벽송당행적》「한불」7-752하~753상.

78) 이 「四家錄」의 西山草錄本은 서산 친필 목적으로서, 孝宗 1年 庚寅(1650)에 全南道 月出山道岬寺에서 開板되었다. 「한불」11-399~423.

임제선풍에서는 “平常心이 道이니, 배고프면 밥먹으며 잠오면 잠단다. 殺佛殺祖하며 佛祖에 俱不禮한다.”는 선풍을 선양한다. 그리고 염불과 송주를 권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經典과 佛像을 불태우라고 가르친다. ‘莫受人惑·殺佛殺祖·焚燒經像’ 등은 임제선풍의 근본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다. 帝都市中을 중심으로 教化하는 敎家法風과는 달리 山間田舍를 중심으로 修行하는 祖師禪風에서는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平常日用에서 殺活自在함을 본연의 가풍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임제를 전후한 시대의 祖師禪家風을 선양하는 선사들 중에는 경전과 불상에 의존하지 않는 ‘了事人’이 되라고 가르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丹霞天然(738~823)은 慧林寺에서 날씨가 춥자 木佛像을 火木으로 焚燒한 일이 있고⁷⁹⁾, 仰山慧寂은 「열반경」40권에 佛說은 얼마나 있고 魔說은 얼마나 있는냐는 滄山靈祐(771~853)의 질문에 “모두가 魔說이다.⁸⁰⁾”라고 답했으며, 大慧宗(1089~1163)는 “참으로 了事凡夫가 된다면 석가·달마는 무엇인가? 泥團土塊이다. 三乘十二分敎는 무엇인가? 熱碗鳴聲이다.⁸¹⁾”라고 하였다. 여기서 熱碗鳴聲이란 무엇을 말하는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벽암록」 제79則에 “僧이 投子에게 ‘모든 소리가 다 佛聲이라 하는데 그렇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投子は ‘그렇다’하고 답했다. 이 때에 僧은 ‘和尚은 屨沸碗이 울리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하였다.⁸²⁾” 이러한 어록이 보인다. ‘屨沸碗鳴聲’은 ‘熱碗鳴聲’과 동일할 것이다. 屨沸碗이란 대·소변을 보는 변기이며, 변을 보기 때문에 屨(屨)의 체온에 의하여 열기가 있는 그릇을 屨沸碗, 熱碗이라 한다. 그리고 鳴聲은 변을 배설하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熱碗鳴聲이란 변기에 앉아서 변보는 소리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大慧는 석가·달마는 흙덩어리이고 三乘經敎는 대·소변을 배설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丹霞의 木佛像 焚燒·仰山의 經說을 魔說로 보는 견해·臨濟의 焚燒經像·大慧의 熱碗鳴聲 등은 중국의 임제종을 비롯한 조사선풍과 후대의 看話禪風에서 일반적으로 보인 경전판이었다. 이에 비하여 서산선풍에서는 매우 다른 선풍의 면목을 보이고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서산은 조사선풍과 간화선풍을 존승하는 선사이면서도 念佛看經禮敬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서산은 “禪定僧으로 골격을 삼고 看經僧으로 근육을 삼는다.⁸³⁾”고 하여 禪定과 看經의 관계를 骨과 肉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산은 경전을 간행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圓覺經重刊募緣偈》에서는 “千聖의 동일한 길이며, 萬部의 청정한 眼目이다. 三千界에 가득한 재보를 가지고 보시한 복이 원각경의 一字·一句의 뜻을 들은 것만 같지 못하고, 대중을 교화해서 四果를 얻게 함이 원

79) 「경덕전등록」권14, 「대정장」 51·310하.

80) 《總是魔說》「경덕전등록」권9, 「대정장」 51·265상.

81) 「大慧普覺禪師書」(書狀)권27, 「대정장」 47·925상.

82) 《和尚莫待沸碗鳴聲》「대정장」 48·205하.

83) 《智異山黃嶺庵記》「청허집」권6, 「한불」 7-715중.

각경의 半偈를 선설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공덕은 신묘해서 생각하기 어렵고, 진리는 상식을 초월한다.⁸⁴⁾ 이렇게 찬탄하고 있다. 이는 서산의 경전에 대한 관점이 임제선풍에서 말하는 것과는 판이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산은 念佛에 대해서도 “一聲을 念하면 80억 겁 生死의 죄를 소멸하고 80억 겁 수승공덕을 성취한다. 一聲도 그러한데 千萬聲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一念도 그러한데 千萬念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른바 十聲念佛에 정토에 왕생한다 함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⁸⁵⁾” 이렇게 권장하고 있으며, 禮敬에 대해서도 “한 번 禮拜하면 만 겁의 재앙을 소멸하고, 한 번 명호를 부르면 천 생의 복덕을 모은다.⁸⁶⁾”고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풍은 經典과 佛像을 焚燒해야 함을 주장하는 선풍과는 확연히 그 처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제와 서산의 法系相承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임제는 자신의 法系相承을 언급한 일이 있다. “道流여! 山僧의 불법은 的的히 相承한다. 麻谷和尚·丹霞和尚·道一和尚·廬山·石鞏和尚으로부터 한 길로 행해져 天下에 두루하나 믿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비방을 한다.⁸⁷⁾”고 한 내용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계상승설은 너무 간략할 뿐아니라 系譜를 천명한 것이 아니고 대중에게 宗風을 선양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임제의 좀 더 구체적인 법계상승의 系譜는 어떻게 될까. 물론 임제선풍도 중국 조사선 五家七宗 중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도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제의 법계상승의 계보는 가까이는 황벽·백장·마조의 계통이며 멀리는 보리달마에까지 상승계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임제의 법계는 중국의 禪門系譜에만 그 연원을 두고 있어서 相承系譜의 간명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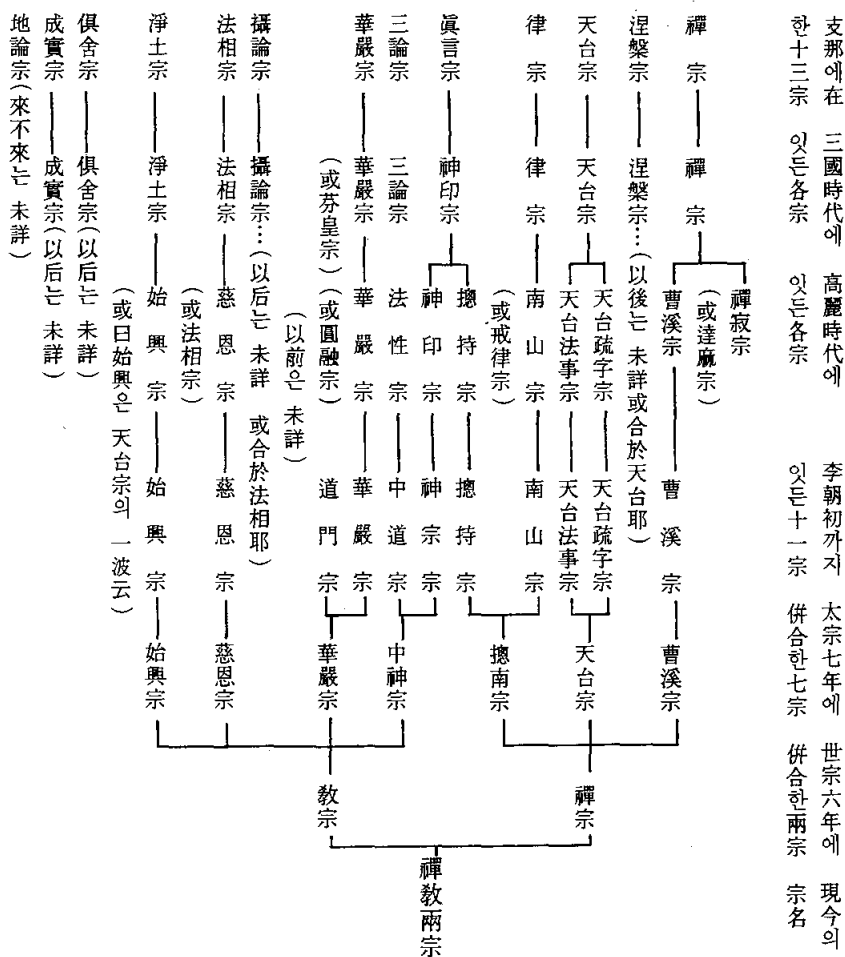
84) 「청허집」권6, 「한불」 7-710중.

85) 《念佛門》「청허집」 7-711상.

86) 「운수단가사」 「한불」 7-745하.

87) 「임제록」, 《示衆》 「대정장」 47·501중.

산은 임제의 상승적 성격과는 전혀 동일하게 논할 수 없는 宗派의 變遷狀況과 문화적 기반 위에서 선풍을 선양하였다. 서산 당시 조선불교의 종파상황을 도표를 통해 참고해 보자.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불교는 麗末鮮初의 정치적 時緣에 의하여 많은 종파가 폐합을 거듭한 끝에 서산 당시에는 禪宗과 敎宗만으로 존속되어지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서산은 禪敎兩宗判事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서산은 老年에 국가의 참혹한 전란을 맞게 된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서산이 조사선풍을 존승하는 선사이지만 念佛看經·扶宗樹敎·福國利生에 정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점은 또한 서산선풍이 갖는 특성이 아닐 수 없다. 서산선풍에서는 敎家風과 福國風을 融會하는 원용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본 도표는 「佛敎」 제4호(1924. 10. 15)에 게재된 도표임.

V. 맺음말

조선후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는 臨濟法統說에 근거한 僧譜를 계승해 왔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서부터는 모든 승려가 臨濟法孫으로 되어있는 祖派家乘을 간직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임제선종과 조선선종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조선선종을 수립하는데 최대의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당시의 불교를 실제적으로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西山禪風과 臨濟禪風과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임제선종과 서산선종과는 많은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임제선종에서는 無修無證·隨處無事의 宗旨에 의하여 眞出家人·眞學道人·眞正見解·無位眞人·無依道人的 機用이 구현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니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說示하며, 十地보살도 떠돌이 나그네이고 等覺·妙覺도 형틀에 얽힌 이들이며, 보리·열반도 당나귀를 매는 말뚝이라고 직설한다. 그러한 까닭에 부처되고자 하고 祖師되고자 하는 것은 곧 지옥업을 짓는 것이며, 經教를 보는 것도 업을 짓는 일이다. 佛祖는 無事人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佛과 祖師에 다 예경하지 않고 殺佛殺祖하며 경전과 佛像을 불태우라고 역설한다. 임제는 이러한 宗旨를 선양하기 때문에 參玄學徒를 提接할 때에도 三句·四料揀·四喝 등으로 하였다. 임제선종의 특성은 이렇게 탈속하고 自在한 데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산선종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서산에게 있어서도 無事·無求·自在를 근본으로하는 禪旨는 임제와 다를바가 없었으나 後學禪子를 接引함에 있어서는 參禪·念佛·看經·誦呪·禮敬 등을 다 권장하였다. 이는 임제선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종이다. 禪教의 宗派가 독립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선종이다. 그러므로, 서산이후 많은 禪師들이 念佛 看經 講學 持誦 등의 業을 兼修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는 평생을 敎學業 淨土業 持誦業을 닦았어도 모두 禪師라 하였다. 이러한 예는 오늘날에도 존속되고 있다. 현재에도 禪師라는 명칭에 ‘華嚴座主·扶宗樹教·南山律主’ 등이 冠詞로 쓰이는 경우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禪師라도 禪定業만 닦는 것이 아니고 華嚴座主·持律淨行者로서의 선사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業을 닦아도 모두 ‘禪師’라 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형성된 이같은 禪教兼修·圓融修行의 선종은 임제선종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선종이다. 佛祖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經典과 佛像을 불태우라고 가르치는 禪風이 임제선종이다. 임제선종에서는 염불 간경 지송이 兼修될 수 없다. 禪師라도 念佛 看經 등의 교학업을 닦는다면 臨濟法孫일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평생을 염불이나 지송만을 專修한 僧侶라면 임제선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임제선종은 조사선종의 禪宗

중에서도 탈속하고 고준한 선풍인데 반하여 염불·지송업은 敎宗의 수행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산에 의하여 더욱 선양된 圓融修行의 조선선풍은 임제선풍과는 확연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조선후기에는 臨濟法統으로 전체 조선승려의 ‘大同僧譜’를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조선불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朝鮮禪宗史를 조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까지는 영역이 미칠 수 없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선풍과 서산선풍은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서산선풍과 임제선풍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조선선풍과 임제선풍과는 확연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제법통설이 조선승려의 승보가 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照明은 다른 연구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